

선군의 위력으로 승리 떨친 격동의 해

뜻깊은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주제 99 (2010) 년의 높은 평년에서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궁지로 부풀어오른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 회의와 당창건 65돐을 자랑한 토력적 성과로 빛내인 뜻깊은 해는 선군의 위력으로 휘파翕으로 전진하는 무쇠철갑 대오, 이날에 올린 장엄한 흑성과는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에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무장으로 기어이 완성하고야말로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학교부동의 힘과 결심을 다시금 치밀하게 선언하는 혁사의 포상, 승리의 포성이었다.

그후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유통과 공군 합동훈련과 태양절에 음성을 통해 전진한 한 민족부대의 종합훈련을 비롯한 여려 훈련들을 보아주시면서 종대로 사회주의 위업, 선군혁명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자 암울의 불변의 신념과 지지를 더해가고 있다.

총대우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도 있다는 것을.

지난 1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선군의 위력으로 오늘의 대고조 승리도 이룩하고 강성대국도 건설하려는 것은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위대한 선군의 의지가 넘쳐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어 겨울에 올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욱 울고 헤어져 전선길에 눈물겹게 안겨온다.

새해두 번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북방의 엄혹한 강추위속에서도 충정의 구슬땀을 흘려가며 위험의 힘을 쌓아가고 있는 군인건설자들을 고무하며 하신 데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 군수과를 조선인민을 위하여 무비의 국제적 혁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랑찬 위용을 세운다.

백승의 혁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민군대를 무직의 장군으로

류경수 제 105땅크사단관 구분대를 찾으시고 땅크훈련을 보시였다.

꽝...

적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한치의 땅이라도 감히 건드린다면 일격에 소멸할 면적의 투지를 암고 위력한 포화력으로 「적진」을 산산이 깨부수는 한해를 끝내고자 했던 것이다.

이제는 한 민족부대를 찾으시여

부대에서 배출된 영웅들의 위용을

일일이 헤아려보시면서 조국과 인

민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우리 당의 참된 밀뿌리였다고, 선

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적극 적어워온 모든 군인들이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이 추억하는 새 세기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휘주며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군

인들의 훈련 모습을 오래도록 보아주시며 혼련이자 곁을 싸움터비하고, 혼련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 전

군에 백두의 혼련열풍이 세계에 퍼

풀어치며 걸어간 그 길은 아들

들을 초소에 세워온 이 나라 천

만부모들의 심정을 다 합쳐도 비기

지 못할 위대한 사랑의 길이었다.

어느 한 부대에 가서여서는 군인

들이 입고있는 솜옷으로부터 침실의

온도와 모포의 질에 대하여서까지 구

체적으로 알아보시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부식물장고에 들리시

여 가득 쌓아놓은 콩가마니들과 벽면에 걸어놓은 고추를 보시고 더없이

민족해취하신 장군님이시다.

군인들이 훌륭한 편의봉사시설을

리용하여 훌륭한 군집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어느 한 민족부대를 찾으시여

부대에서 배출된 영웅들의 위용을

일일이 헤아려보시면서 조국과 인

민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우리 당의 참된 밀뿌리였다고, 선

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적극 적어워온 모든 군인들이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이 추억하는 새 세기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휘주며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군

인들의 훈련 모습을 오래도록 보아주시며 혼련이자 곁을 싸움터비하고, 혼련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 전

군에 백두의 혼련열풍이 세계에 퍼

풀어치며 걸어간 그 길은 아들

들을 초소에 세워온 이 나라 천

만부모들의 심정을 다 합쳐도 비기

지 못할 위대한 사랑의 길이었다.

어느 한 부대에 가서여서는 군인

들이 입고있는 솜옷으로부터 침실의

온도와 모포의 질에 대하여서까지 구

체적으로 알아보시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부식물장고에 들리시

여 가득 쌓아놓은 콩가마니들과 벽면에 걸어놓은 고추를 보시고 더없이

민족해취하신 장군님이시다.

군인들이 훌륭한 편의봉사시설을

리용하여 훌륭한 군집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어느 한 민족부대를 찾으시여

부대에서 배출된 영웅들의 위용을

일일이 헤아려보시면서 조국과 인

민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우리 당의 참된 밀뿌리였다고, 선

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적극 적어워온 모든 군인들이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이 추억하는 새 세기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휘주며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군

인들의 훈련 모습을 오래도록 보아주시며 혼련이자 곁을 싸움터비하고, 혼련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 전

군에 백두의 혼련열풍이 세계에 퍼

풀어치며 걸어간 그 길은 아들

들을 초소에 세워온 이 나라 천

만부모들의 심정을 다 합쳐도 비기

지 못할 위대한 사랑의 길이었다.

어느 한 부대에 가서여서는 군인

들이 입고있는 솜옷으로부터 침실의

온도와 모포의 질에 대하여서까지 구

체적으로 알아보시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부식물장고에 들리시

여 가득 쌓아놓은 콩가마니들과 벽면에 걸어놓은 고추를 보시고 더없이

민족해취하신 장군님이시다.

군인들이 훌륭한 편의봉사시설을

리용하여 훌륭한 군집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어느 한 민족부대를 찾으시여

부대에서 배출된 영웅들의 위용을

일일이 헤아려보시면서 조국과 인

민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우리 당의 참된 밀뿌리였다고, 선

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적극 적어워온 모든 군인들이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이 추억하는 새 세기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휘주며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군

인들의 훈련 모습을 오래도록 보아주시며 혼련이자 곁을 싸움터비하고, 혼련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 전

군에 백두의 혼련열풍이 세계에 퍼

풀어치며 걸어간 그 길은 아들

들을 초소에 세워온 이 나라 천

만부모들의 심정을 다 합쳐도 비기

지 못할 위대한 사랑의 길이었다.

어느 한 민족부대를 찾으시여

부대에서 배출된 영웅들의 위용을

일일이 헤아려보시면서 조국과 인

민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우리 당의 참된 밀뿌리였다고, 선

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적극 적어워온 모든 군인들이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이 추억하는 새 세기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휘주며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군

인들의 훈련 모습을 오래도록 보아주시며 혼련이자 곁을 싸움터비하고, 혼련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 전

군에 백두의 혼련열풍이 세계에 퍼

풀어치며 걸어간 그 길은 아들

들을 초소에 세워온 이 나라 천

만부모들의 심정을 다 합쳐도 비기

지 못할 위대한 사랑의 길이었다.

어느 한 민족부대를 찾으시여

부대에서 배출된 영웅들의 위용을

일일이 헤아려보시면서 조국과 인

민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우리 당의 참된 밀뿌리였다고, 선

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적극 적어워온 모든 군인들이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이 추억하는 새 세기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휘주며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군

인들의 훈련 모습을 오래도록 보아주시며 혼련이자 곁을 싸움터비하고, 혼련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 전

군에 백두의 혼련열풍이 세계에 퍼

풀어치며 걸어간 그 길은 아들

들을 초소에 세워온 이 나라 천

만부모들의 심정을 다 합쳐도 비기

지 못할 위대한 사랑의 길이었다.

어느 한 민족부대를 찾으시여

부대에서 배출된 영웅들의 위용을

일일이 헤아려보시면서 조국과 인

민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우리 당의 참된 밀뿌리였다고, 선

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적극 적어워온 모든 군인들이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이 추억하는 새 세기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휘주며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군

인들의 훈련 모습을 오래도록 보아주시며 혼련이자 곁을 싸움터비하고, 혼련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 전

군에 백두의 혼련열풍이 세계에 퍼

풀어치며 걸어간 그 길은 아들

들을 초소에 세워온 이 나라 천

만부모들의 심정을 다 합쳐도 비기

지 못할 위대한 사랑의 길이었다.

어느 한 민족부대를 찾으시여

부대에서

당의 령도따라 국토관리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긍지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펼쳐진 전변의 새 모습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주제 99 (2010)년!

저물어가는 12월의 언덕에서 선군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펼쳐보는 우리의 가슴은 어이하여 크나큰 궁지로 봄을 어오르는 것인가. 그것은 내 나라 내 조국의 자랑스러운 전변의 새 모습에 이 땅을 살기 좋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비껴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조국 강산을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이 현실로 꽂혀난 사회주의 선경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의 힘으로 바쳐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 어찌 오늘의 천지개벽을 생각할 수 있으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사업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7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전변의 새 모습을 펼친 뜻깊은 올해를 긍지높이 들어켜본다.

우리 나라 서해안의 전반적

지역에 일찌기 없었던 해일이 닦쳤을 때 대체 도일 대의 해일 피해 상황을 보고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현명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천지개벽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파연 무슨 힘이 있어 우리의 미덕을 간석지건설자들은 서해갑문에 못지 않은 방대한 간석지건설을 기적적으로 완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담력을 배짱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현장의 건설자들은 대체로 간석지

지를 력사적인 당대 표자회와

당창건 65돐에 드리는 노력

적선물로 훌륭히 원공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승리적으로 완공된 대체도간석지를 찾으시었던 그날 날바다를 헤

가르며 험준한 제방들

로 둘러싸인 개간된 간석지를

온돌과 황금을 훌륭히 원공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완공된 대체도간석지를 찾으셨던 그날 대체도간석지건설공사를 높이 밟았고 대내 당원들과 건설자들이 방대한 공사를 성과적으로 해제하였다. 현대적인 도로들이 건설됨으로써 주변 일대의 풍치가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었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근년간 평안북도에서 도로건설과 산림조성을 비롯하여 국토환경보호사업을 일으켜나갈 불리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투사들이며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기억하고 추억할 위인 창조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체도간석지건설을 완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판찰한 평안북도간석지건설현

할기업소에 김일성훈장을, 대체도간석지건설과 김일성상, 강하천체방공사와 중소형발전소건설 등 국토관리전반사업에서 어찌 새운을 전환할 일이나

국토관리사업에서 일찌기 있

어보지 못한 성과들이 창조되

어 내 나라, 내 조국의 면모가

더욱 블로하게 전면된 것은 국토를 강성대국의 면모에 맞게 전변시킬 수 있는 것

은 우리 장군님의 변함없는

의지이다.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1월 말

평안북도에서 건설한 도로를 돌아보시던 그날도 당시 우대국 흥보호구상을 높이 밟았고 대내 당원들과 건설자들이 방대한 공사를 성과적으로 해제하였다. 현대적인 도로들이 건설됨으로써 주변

일대의 풍치가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었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

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근년간 평안북

도에서 도로건설과 산림조성

을 비롯하여 국토환경보호사업을 일으켜나갈 불리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도처에 솟아난 선경마을

뜻깊은 올해 각지 농촌들에는 선경마을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도시와 농촌들에 21세기의 사회주의 선경마을을 더 많이 일떠세울 대한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밟들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리의 이르는 곳마다

선경마을들을

건설하였다.

이런 가슴뜨거운 사랑의 이

야기는 조국땅 그 어디서나 꽂

펴났으니 나무보생산과 산림조

성, 간석지건설과 도로건설,

강하천체방공사와 중소형발전

장에서도 선경마을이 일떠섰다.

지난해 동봉땅은 세차례나 찾

으시여 농촌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농장을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러원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근로자들은 새롭

농장의 일군들, 근로자들은

몇

달동안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3작업반에 수십명의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문화시설을

생산건물을 빙두하게 일

펴세웠다.

우리는 사회주의 농

촌건설을 험하여 산림조

성, 간석지건설과 도로건설,

강하천체방공사와 중소형발전

장에서도 선경마을이 일

떠났으나 농촌마을을

집설하였다.

하늘아래 첫 동네라 불리

우는 삼수군 삼곡리에도 인

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닌 량강도민보안국의 인

민보안원들에 의하여 선경마

을 이 일 떠셨으며 해선리를

비롯하여 분계연선 개설시

농촌들에 도 사회주의 선경마

을 사랑하며 새 마을들이 건설

되었다.

내 나라 농촌에 날로 늘어나

는 선경마을들은 어버이수령님

의 사회주의 농촌건설구상을 현

실로 풀어놓기 시작하는

장군님의 정의로운 일

을 품고 있다.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

은 일련의

전변시켜야 한다.

지난 3월 사리원시

미국협동농장을 또다시

찾으신 5, 6 작업반부

락으로 아담한 농촌문화주제들을

몇몇들이 지어

새집들이를 하였다.

동천군과 농촌들을

도로로 놓은 일

을 풀어놓기 위해

이루어졌다.

본사기자 김향란

장기속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

로 호안림을 조성하여 주변의

풍치를 더욱 우수하게 하였다.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

들도 강하천을

선경마을로

보호하고 인

민들의 생활상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

집니다.»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에 『모든 강을 락

원의 강, 보배 강으로 만들자!』

라는 공동구호를 실천해

나라의 산림조성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라고

하나의 위대한 승리라고

언제나 대체도간석지건설과

산림조성사업을

전면시켜야 한다.

평양시의 일군들과 근로자

들은 대동강과 보통강간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인민의 문화휴식터를

이루어졌다.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

들은 대동강과

보통강간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나라의 산림자원

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수립화, 원림화실현에서 큰 전진을

을 더욱 높이고 거리와 마

을, 공원들에 푸른 숲이 우

거지게 한 것이다.

올해에 각 도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국토

대축전으로 성대하게 경축한

도로 기술개선과 함께

수원을 높여 전변시켜야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 푸른 숲을 일구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승리자

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

별도로 험난한 투쟁을 벌여

온갖 고생과 험난한 투쟁을

기록해온 일군들은 그 힘으로

수원을 높여 전변시켜야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 푸른 숲을 일구고 있다.

(시) 령장의 자국

신문경

승리자의 긍지
민족의 존엄을 암고
축포의 불보라 하늘가에 허저오를 때
나는 어이하여 숙연한 눈길로
딛고 선 이 땅을 더듬어보는가

하늘의 저 불보라보다 더 눈부신
땅위에 빛나는 밤자유 밤자유
내 눈에는 보여오누나
열아홉에
최고사령관 우리 장군님 새겨오신
뜨거운 그 자육자육

삼복철 행군의 나날
잠시 편들일 사이도 없이 전선길 이어
가신
그 시내가, 그 폭포수는 어디더니
눈보라치는 땅길
얼어든 아침복자락 뉴이던 모닥불
오늘도 눈물속에 그려보는 그날의 모닥
불은...

누구나 바라볼수 있는 그런 하늘을
내 이고 사는 것인가
철령의 눈비속에
초도의 파도우에
장군님의 그 자육 없었다면
얼백번 불비가 쓰아지고 꺼져내렸을
우리의 저 푸른 하늘

준공의 환회로 설레이는
발전소의 언제밀에도
험한 날 먼저 오시여 찍으신 그의
자육
꽃향기 넘치는 백리파원길에 노
눈비에 젖어있던 그 자육

어이 알리

소박한 아전식사마저
인민들 생각에 목에 거두시고
전선길 이어 가신 뜨거운 사연
그 어느 터리비위에 깃들이었는지
똑같은 드시다가도
인민들을 찾아 또다시 떠나신
그 밤길 그 새벽길은 얼마였던가

내 나라 어디나 새겨진
불멸의 자육자육에 빛나는
이 땅에 밝아오는 강성대국의 새
아침
인민은 들었다

고난의 천만시련 이겨낸 언덕에서
승리의 개가마냥 울리는 CNC의 동음
지구를 들었다는 강국의 위용을

오, 조국과 민족이
강대국의 모습으로 태여난 세월
세계를 향해
비약의 나래펴고 내달리게 한
최고사령관의 열아홉성상이여

지워지지 않으리라
이 땅에 세세년년 눈비가 내린대도
빛나 빛나리라
고난의 천리를 넘어
행복의 만리로 이끌어온 그 자육
민족의 만년대를 열어놓은 그 자육

승리의 축포가 오르는
크나큰 변혁과 기적들을 뒤에 두고
오늘도 그 자육은 이어져간다
인민을 암고 조국을 이끌고
위대한 애국자
위대한 령장의 불멸의 자육은
풀없이 이 땅에 빛나쳐간다

이리도 험한 산발 넘으셨단말인가
울려다보면 금시 짓쳐내릴듯
산리엔 날을 세운 거암들
내려다보면 깎아지른듯
이찔한 칼벼랑길

인민의 운명지켜

최진연 철령을 넘으시던 그 걸음

인민의 행복 꽂피우시려
오늘은 험준한 탕립산맥에
그대로 이어놓으신 장군님

그이의 마음속엔 있었다
석수가 쏟아지는 물길 줄도
행복의 만리길로 뻗은 한구간으로
거치른 산바람이 물어뜯는 아아한
산정도

행복의 령마루와 잇닿은 한 지역으로

정녕 그이에겐

조국수호의 길처럼

조국번영의 길도 사생결단의 길

그이 넘으신 철철준령의 이 산발에

철령의 눈보라가 일었다

오 탕립산맥에 최고사령관의 전선

시간이 흐른다

북방의 산악을
거연히 덮고 서신 자옥아래
세월을 앞당기며 거창하게 치솟는 언제
인민의 집집으로 빛과 열을 싣고 갈
은빛 송전선들이 즐기풀기 빛나간다
화창한 2012년의 봄날이 눈앞에
설레인다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자옥으로 솟아
빛나는

이 신전에서 내 소리높이 웨치고싶구나
강성대국의 아침이 밝아오는

탕립산맥에

너는 북방의 철령

또하나의 선군혁명 승리의 기념비라고!

우리 어머님 붉은 오각별을 새기시던
해방선기슭의 그밤이여

수령님의 나라 인민의 나라
길이길이 빛나기를 바라시며
사랑을 담아 정을 담아 한동 또 한동
인민의 만복이 꽂펴날 거리와 마을들을
마음속에 다 걸어보신 우리 어머님

오, 바라불수록

어머님의 뜨거운 숨결로

세차례 나붓는 우리의 기발

우리를 수록

어머님의 정이 슬霉여

가슴 후려운 우리 공화국기

어머님 그토록 바라시던

인민의 기쁨

제 기폭아래서 다 꽂펴나거니

빼앗긴 조국의 설을

오늘은 우리 장군님의 사랑속에 일떠선

아 그날의 어머님 냄원이
제 기발에 어리여있어라
그 누구도 견드릴 수 없는 우리 존엄
백두산강국의 위용멸치며
만리대공에 우리 위성 날으는
내 조국의 모습이

어머님 심장의 크나큰 울림인가
공화국기발의 세찬 퍼덕임소리
노도처 내닫는
무쇠철갑의 포성으로 메아리치고
강성대국 승리의 환호성으로 울려
펴져라

아, 어머님
우리 어머님 사랑하신 공화국기발
세기와 행성을 끌어보며 나뭇건다
어머님 그 미소를 안고
어머님 그 냄원을 안고

(시) 봄빛넘친 회령의 12월이여

리연희

흰눈도 풀잎처럼 날리는 회령땅
어머님의 기쁨속에
환회로 설레이는 12월의 이 아침

어머님은 다 보고계시리

회령으로 찾아오신 장군의 자옥너머

주제월 쇠풀로 피어나는 붉은 노을

비단송송우에 어린 인민의 웃음

가없이 젖혀진 파원에 주령진 행복의
열매들을

송이송이 흰눈이 내리는

12월의 오산백마루

어머님께 삼가 경의를 드리며

장군님 서시었던 그 자리에
병사 내가 섰노라

오, 그 총을 오늘도 안고계시는 어머님

총이 무엇을 위해

총대가 무엇을 지켜 있어야 하는가를

조선혁명의 선군사에 값높이 새겨
주신

백두산의 호위장군 김정숙어머님

그 모습을 우러르며

이 나라 병사들은

마음속에 대사하연력을 세우고 사노라

세우는 바뀌여도 변할수 없는 백두의
정통

수령결사옹위 그 정신을

피끓는 가슴마다에 총탄처럼 재우고
사노라

어머님처럼 총대를 끌까지 사랑하리

어머님처럼 총대를 생명처럼 간직하리

그 신념으로 심장을 끓이며

최고사령부를 지켜

총잡고 전호에 서있는 병사들

장군님은 조선의 윤명!

영원한 삶의 메아리를 울려주시며

어머님은 백두산시절처럼 총파 함께
계신다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결사옹위의 천만대오를 이끌며

어머님은 신군길을 총대와 함께 가신다

장군님은 조선의 윤명!

영원한 삶의 메아리를 울려주시며

어머님은 백두산시절처럼 총파 함께
계신다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결사옹위의 천만대오를 이끌며

어머님은 신군길을 총대와 함께 가신다

장군님은 조선의 윤명!

영원한 삶의 메아리를 울려주시며

어머님은 백두산시절처럼 총파 함께
계신다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결사옹위의 천만대오를 이끌며

어머님은 신군길을 총대와 함께 가신다

장군님은 조선의 윤명!

영원한 삶의 메아리를 울려주시며

어머님은 백두산시절처럼 총파 함께
계신다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결사옹위의 천만대오를 이끌며

어머님은 신군길을 총대와 함께 가신다

장군님은 조선의 윤명!

영원한 삶의 메아리를 울려주시며

어머님은 백두산시절처럼 총파 함께
계신다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결사옹위의 천만대오를 이끌며

어머님은 신군길을 총대와 함께 가신다

장군님은 조선의 윤명!

영원한 삶의 메아리를 울려주시며

어머님은 백두산시절처럼 총파 함께
계신다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결사옹위의 천만대오를 이끌며

어머님은 신군길을 총대와 함께 가신다

장군님은 조선의 윤명!

영원한 삶의 메아리를 울려주시며

어머님은 백두산시절처럼 총파 함께
계신다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결사옹위의 천만대오를 이끌며

어머님은 신군길을 총대와 함께 가신다

장군님은 조선의 윤명!

영원한 삶의 메아리를 울려주시며

어머님은 백두산시절처럼 총파 함께
계신다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결사옹위의 천만대오를 이끌며

어머님은 신군길을 총대와 함께 가신다

장군님은 조선의 윤명!

영원한 삶의 메아리를 울려주시며

어머님은 백두산시절처럼 총파 함께
계신다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결사옹위의 천만대오를 이끌며

어머님은 신군길을 총대와 함께 가신다

장군님은 조선의 윤명!

영원한 삶의 메아리를 울려주시며

어머님은 백두산시절처럼 총파 함께
계신다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결사옹위의 천만대오를 이끌며

어머님은 신군길을 총대와 함께 가신다

장군님은 조선의 윤명!

영원한 삶의 메아리를 울려주시며

어머님은 백두산시절처럼 총파 함께
계신다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결사옹위의 천만대오를 이끌며

어머님은 신군길을 총대와 함께 가신다

장군님은 조선의 윤명!

영원한 삶의 메아리를 울려주시며

어머님은 백두산시절처럼 총파 함께
계신다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결사옹위의 천만대오를 이끌며

어머님은 신군길을 총대와 함께 가신다</

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오는 절세의 애국자

백두의 친출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속에 날과 달을 보내고 있는 남녀인민들은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천란한 빼일을 위해 온갖 고고와 심혈을 바치시는 그 날을 앞당겨오고 애달프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남녀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펼치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통일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민족의 안녕도 지켜주시고 통일조국의 빼일도 열어주시나』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의 한 교수는 『민족사적인 통일위업을 성공으로 촉진시키자면 김정일 장군님을 따라 통일운동에 감각을 하면서 나서야 한다. 김정일 장군님은 통일의 구심으로 모시고 따르면 반드시 통일이 이뤄진다』고 강조하였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도 『뛰어난 정치감각과 평도적 수완, 철석 같은 통일의 지도로 우리 민족끼리시대를 열어주시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통일의 위대한 경력과 보람을 선군정치가 있으며 통일의

리정표인 6. 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 선언이 있는 한 자주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 것이다.』고 확인에 넘쳐 말하였다.

서울의 한 지식인과 부산의 재야인사, 통운동가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도

『김정일 령수님께서는 참된 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두件事 속에 있다고 하면서 시여 분별된 민족의 아픔을 가시여주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계신다. 김정일 령수님께서는 통일문제 해결에서 관전적의 를 가지는 수많은 제인들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으로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에 모든것을

을 지향시켜나가신다.』라고 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은 남조선의 어느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읽을 수 있다.

『… 우리 민족은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을 모시여 세계정치 무대에 당당하고 막강한 민족으로 등장하고 있으면 민족의 자주권을 행사하면서 하나로 통일되는 부강한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은 회원들은 『김일성 주석님을 최상의 높이에서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령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해 주신 도덕의 힘으로 끌어들여온 민족의 아름다운 빼일』이라고 말한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이 시야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하기에 남녀인민들은 조국 통일의 구성 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자주권을 회복하면서 전쟁의 마움이 날로 뜨겁게 되어온 조국의 밝은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조국을 통일하는 빼일을 기약하고 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평화국가》의 허울을 벗어던진 전쟁국가의 위험성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폐망한 일본은 국제사회에 대고 제일 요란하게 광고하는 것이 『평화국가』 타령이다. 일본당국자들은 자국이 『평화국가』라고 냅다처처럼 외우며 유엔 안보리 사회 상임리사국자리도 넘겨다 보고있다. 견디는 국인 일본은 올해에 국제사회 앞에서 『평화국가』 생색을 내느라 고개를 끌어들여 국제 행사판도 크게 뛰어놓았다. 그들은 히로시마에서 있은 행사에 미국대표단이 처음으로 참가한 것을 두고 저들이 『평화국가』로 인정받은 듯이 너스레를 떨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평화국가』로 가장하고 별의 역할을 다 놓았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사회에 전쟁국가, 침략세력으로서의 저들의 흥악한 정체를 더욱 드러내보여주었을 뿐이다. 올해에 일본은 자들이 지금까지 『평화국가』의 정표라고 대들었던 간판들을 채버리고 전쟁국가만이 할 수 있는 온당치 못한 일들을 끌어내고 있다.

핵무기의 제조, 반입, 보유를 하지 않는다는 『비핵 3 원칙』은 일본이 국시로 내세우고 있는 『평화국가』의 주요 정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전에 일본은 사실상 그것을 깨버렸다. 일본수상 간 나오는 히로시마에서 진행된 기행사후 기자회견이라는에서 그 누구에 의해 『핵위협』이 조성되고 있듯이 계면을 늘어놓으면서 『핵억제력』은 일본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떠들었다. 이것은 허울뿐인 『비핵 3 원칙』을 깨버리겠다는 것을 뼈저리기 때문이거나, 일본은 기만적인 『비핵 3 원칙』의 명목을 늘어놓으면서 『핵무기 반입을 눈감아주는 대신 상전의 목인, 비밀리에 미밀리에 핵무장화책 등을 추진하여 수천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하고, 임의의 순간에 술

한 핵무기를 제작, 보유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해 놓았으며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목사포와 핵탄두를 적재 할 수 있는 전투기 등 핵탄두 운반수단들도 갖추어놓은 일본집권자들이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까닭이다.

『보증』한다는 미명하에 충청정원 성 『미찌비끼』를 탑재한 국산 대형 로켓 『H-2A』 18호기를 발사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미국의 『GPS』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해외침략을 위한 독자적인 정보수

최남단에 위치한 지부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하는데 달라붙었다. 이것은 위험한 사태발전으로서 일본군국주의 자들의 해외침략 홍예가 실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일본이 올해에 『국제평화협력』의 미명하에 보다 합법적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마련하게 갖추기 위해 밤낮으로 협력하고 있다

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일본은 올해에 『국제평화협력』의 정표인 『비핵 3 원칙』을 표명하였는가 하면 원자폭탄 투하된 날을 제기로 여러 나라들과 벌린 『전파안보발

기』에 따른 해상 항공군사연습에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 3 원칙』을 법률적 틀에 뛰어들자는 것을 이루어냈다. 자민당은 임의의 시각에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과 조건, 일본이 형식상으로 나마 가지고 있던 일본 본반동들이 미국, 남조선 등으로

크게 되어 있다. 일본이 형식상으로 나마 가지고 있는 일본군국주의

전쟁국가의 정체가 여실히 드러났다. 일본군국주의 조선제침기도가 위험

수위를 넘어 해상 항공군사연습에 일본군국주의 세력으로 뛰어들자는 것을 이루어냈다. 바로 여기에 전쟁국가, 해외파견 가능성을 표시하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일본반반동들의 군사대국화를 통증으로 『전파안보법』은 명색이었다. 오늘날 그것들은 일본의 무모한 군사대국화, 해외파견 등을 막는데 아무런 구실도 못하고 있다. 일본의 『평화국가』의 허울은 완전히 벗겨지고

가를 잘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본군

국주의 세력의 조선제침기도가 위험

수위를 넘어 해상 항공군사연습에 『자위대』의 기동타격무력을 참가시킨 것

만 놓고보아도 그들이 미국상전의 『전쟁우산』을 쓰고 올해에 조선

제침준비 완성이 얼마나 팽팽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본군

국주의 세력의 조선제침기도가 위험

수위를 넘어 해상 항공군사연습에 『자위대』를 해외파견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가능성을 조건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 협력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